"'오직 참선' 월성 스님 가르침 계승하겠다"

10월 21일 법주사서 영결 · 다비식
1000여 대중 참석, 스님 추모
"스님의 원력, 자비행 큰 울림"

보은=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옹 월성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10월 21일 보은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진옹(震翁) 월성(月性) 대종사의 영결식이 10월 21일 보은 법주사에서 엄수됐다.

금오문도장의위원회가 21일 법주사에서 봉행한 영결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대종사, 불국사 회주 법달 대종사,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법주사 원로 설조 스님,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 법주사 율주 무상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을 비롯해 최재형 보은군수, 금강화 법주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되새겼다.

월성 스님은 1933년 음력 5월 4일 전북 남원군 아영면 두닥리에서 부친 박창만, 모친 하남순의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남원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금오 스님을 은사로 구례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덕숭산 정혜사를 비롯해 봉암사, 칠불사, 도성암,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다. 1994~96년 법주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금오 스님을 13년간 시봉하고 금오문도회 문장, 법주사 총지선원 선덕, 복천선원장을 역임했다. 2021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10월 19일 오전 4시 복천암에서 법납 72세, 세수 91세로 원적했다.

법주사 선덕 함주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의 원력과 자비행을 이어받아 불법홍포와 중생구제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겠다"고 추모했다.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은 "월성 대선사는 복천선원에서 50여 년을 한결같이 참선 정진으로 일생을 지내셨다. 또한 금오 대선사의 가풍을 이어 복천선원을 모범적으로 일구셨다"고 회고했다.

법주사 조실 지명 스님은 법어에서 "큰스님과의 이별을 애달파하고 그리워하는 대중들과 전 금오문도는 스님께 존경과 흠모를 보낸다. 스님께서 속히 우리 곁에 나투어 주시길 바란다"고 애도했다.

이어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따라 큰스님들을 모시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후 스님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참석 대중들은 "스님, 불들어갑니다"를 외치며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월성 스님의 초재는 보은 복천암, 2재는 옥천 용암사, 3재는 남원 대복사, 4재는 삼척 고봉암, 5재는 보은 문수사, 6재는 속리산 관자재암, 막재는 법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화성 용주사 수륙대재…"국태민안 기원"

10월 18일, 대웅전 특설무대서
정조 효심 울려 퍼진 자비법음


화성 용주사는 10월 18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정조대왕의 효심이 깃든 효찰대본산 용주사에서 유주무혼을 천도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화성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는 10월 18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용주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수륙재는 시련의식으로 막을 열었다. 인로왕보살번을 선두로 호적, 취타대, 삼현육각, 연과 위패를 모신 신도들이 장엄한 행렬을 이끌며 불보살님과 고혼을 도량으로 모셔왔다. 이어 왕의 교지와 하사품을 전달하는 의식을 정명근 화성시장이 진행했다.

법요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찬불가 합창, 봉행사와 축사, 감사패 수여, 자비나눔 쌀 전달식, 라오스 불상 전달식, 축원, 법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수륙대재 봉행위원장 성효 스님(용주사 주지)은 봉행사에서 "지금 함께 한 수륙의 영혼들은 복이 많은 존재"라며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이 오늘의 용주사를 있게 했고, 그 발원이 이어져 고혼을 치유하는 수륙대재가 봉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요식에서는 라오스 중앙불교협회와 용주사 간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라오스 불상이 전달됐다. 전달식에 참석한 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와 라오스 스님들은 불상에 직접 기도와 축원을 올리며 양국 불교계의 연대를 다졌다. 또한 수륙재 동참자들이 시주한 쌀이 화성시에 전달돼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용주사는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명복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며 수륙재를 봉행한 '효행과 치유의 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수륙재로 세종대왕 원력 기리다

강진 무위사, 10월 18일 수륙재 재현…창작뮤지컬도


왕의 숭고한 뜻이 깃든 법회"라고 강조했다.

강진 무위사(주지 법오 스님)가 10월 18일 대적광전에서 '강진 무위사 수륙대재'를 봉행했다.

이번 수륙대재는 1부 시련의식, 2부 법요식, 3부 회향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위패를 이운하는 시련의식을 시작으로 대련, 관욕, 조전점안이운, 운수상단 의식이 이어졌다.

주지 법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청명한 하늘 아래 월출산의 기운이 감도는 천년고찰 무위사에서 수륙대재의 인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 의식은 단순한 불교행사가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한 세종대왕의 숭고한 뜻이 깃든 법회"라고 강조했다.

무위사 수륙대재는 1430년 세종대왕이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업적을 기리고, 고려 왕실과 건국 과정에서 희생된 영혼을 위로하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중단되었다가 현 주지 법오 스님에 의해 복원되어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무위사는 이번 수륙대재를 앞두고 10월 17일 대적광전 특설무대에서 창작뮤지컬 '세종의 꿈'을 공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김제 금산사, 1426주년 개산대재

10월 18일, 특설무대서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는 10월 18일 대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 호남 제일도량으로서의 창건 정신을 되새기고 역대 조사 스님들의 수행 원력을 기리는 제1426주년 개산대재와 모악문화제를 봉행했다.〈사진〉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개산대재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속에 스며들기를 발원하는 귀한 자리" 라며 "오늘의 개산대재가 과거의 빛나는 가르침을 현재에 이어 미래로 전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점심공양 후에는 '제2회 모악산 금빛가요제'가 열려 퓨전국악그룹 오감도, 아이돌 로커 오뮤오, 트로트 걸그룹 몸빼걸스, 가수 김용진 등이 무대를 선보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인사, 제65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10월 17~18일, 금강계단 등서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10월 17일부터 18까지 경내 금강계단, 법계탑 마당, 대적광전, 보경당 일원에서 '제65회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대방광불화엄경〉 독경과 화엄시식이 함께 진행돼 불자들이 계율 정신을 되새기는 장엄한 법석으로 마련됐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혜일 스님(해인사 주지), 갈마아사리 경암 스님, 교수아사리 금강 스님(율학승가대학원장) 등 3사 7증 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됐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는 수계법문을 통해 "예(禮)와 계(戒)는 불자의 삶의 근본이며, 중심을 잃지 않고 예를 지켜 살아간다면 자신과 가정, 사회가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설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구례 천은사, 구례북중 전교생에 장학금

10월 21일, 28명에 840만원



구례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가 지역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천은사는 10월 21일 구례북중학교 도서실에서 '2025년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교생 28명에게 각 30만원씩 총 8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사진〉

주지 대진 스님은 "앞으로 여러분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북중학교 다니던 때가 행복했지' 하는 좋은 기억이 남도록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 성주사, 가을 산사음악회

10월 18일, 설법전서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 스님)는 10월 18일 설법전에서 '가을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불자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주지 법안 스님은 인사말에서 "가을 선율이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논산 쌍계사 주지 대륜 스님 취임

논산 쌍계사 주지에 대륜 스님〈사진〉이 10월 19일 취임했다.

쌍계사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부주지 혜경 스님, 중앙종회의원 태진 스님 등 6교구 본말사 스님들이 함께했다.

주지 대륜 스님은 취임사에서 "기도하는 도량, 전법하는 도량, 이웃과 함께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륜 스님은 자비나눔의 쌀 1000kg을 양촌면 저소득층 250가구에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응공조계종 창종 14주년 기념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 대종사)은 10월 19일 총본산인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14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을 비롯해 원로 수덕 스님, 교육원장 경담 스님 등 사부대중이 함께해 창종의 의미를 되새겼다.

법운 스님은 법어에서 "모든 사부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중생구제와 세계평화의 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장흥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 개최

장흥 보림사(주지 정응 스님)가 10월 18일 경내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보림사 비자림 음악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음악제는 침됐던 보림사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지역민들에게 위안과 행복을 전하는 화합의 무대로 마련됐다.

주지 정응 스님은 인사말에서 "숲·역사·문학·음악이 어우러지는 비자림 음악제를 통해 지역에 생명력과 평화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 각원사 제17회 효음악회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10월 18일 시민들과 효와 나눔의 가치를 되새기는 '제17회 각원사 효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각원사 대웅보전 앞 특설무대와 경내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불교의 가르침과 음악, 공양이 어우러진 시민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대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원사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서 효와 나눔의 정신을 일상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주 금선암 제5회 금선보은문화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은 10월 19일 전주시 완산생활체육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5회 금선 보은문화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금선암과 금선암 자비공덕회는 효행 실천으로 모범이 된 김정순 불자에게 효부상을 수여하고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자비공덕회는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랑'에 라면 100박스, 송광정심원·정각주간보호센터 등에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군산 상주사 체험관 개관 기념음악회

군산 상주사(주지 도연 스님)는 10월 18일 경내에 불교문화체험관을 개관하고 체험관 앞마당에서 축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주지 도연 스님은 "불교문화체험관이 군산시민과 방문객들이 수행과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이어 진행된 산사음악회 상주사 비파라수합창단, 도립무용단, 김금희 국악팀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